

경향신문

갤러리 제이슨함, 앤서니 피어슨 개인전 29일까지 개최

디지털뉴스팀

입력 : 2018.05.10 20:46:01 |



앤서니
피어슨의
작품
<Untitled
(Etched
Plaster),
2018>

회화와 조각의 특징을 결합해 혁신적인 장르를 연구하는 작가 앤서니 피어슨의 국내 첫 개인전이 29일까지 서울 성북구 갤러리 제이슨함에서 열린다.

앤서니 피어슨은 다양한 예술의 갈래 사이를 탐구하고 도전해오면서, 특히 회화와 조각의 표현 양식의 특징을 결합하는 것에 주목해 기존의 예술의 경계를 파괴하는 작품들을 완성했다. 미국에서는 '미니애폴리스 미드웨이 컨템포러리 아트'를 비롯해 다수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개인전과 그룹전을 개최했다.

'제이슨함'에서는 <Plaster Positive>, <Etched Plaster>, 그리고 <Embedment> 연작을 소개하고 있다. 작품들은 석고의 한 종류인 하이드로칼(hydrocal)을 변주하는 그의 작업 방식을 대표해 조각의 작업 방식을 차용하면서도 회화의 외양을 닮은 프레임을 제시한다. 또한 특유의 입체적 질감으로 인해 주변의 배경과 빛에 조응하여 각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느낌을 전달하고 관점에 따라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앤서니 피어슨
의 작품
<Untitled
(Embedment),
2018>

‘제이슨함’의 함윤철 대표는 “현대적인 이미지와 미술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피어슨의 작품들을 미국 밖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돼 무척 기쁘다”며 “그의 작품들은 회화와 조각 사이를 결합해 독특한 이미지를 선보이며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고 소개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